

사회구조적 변인과 사회적 지원에 따른 취업주부 · 비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

김 혜 원

이화여대 교육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여성의 취업, 특히 기혼 여성의 취업이 여성의 심리적 안녕 혹은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안녕은 취업이라는 하나의 변화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그 여성이 지니고 있는 여러 사회구조적 변인과 주변의 도움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기본 가설 하에, 본 연구는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사회구조적 요인, 사회적 지원 정도, 그리고 결과 변인으로서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1995년 11월 1일부터 12월 4일 간의 기간 동안 서울과 서울 근교 558명의 취업주부 · 비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사회구조적 요인들 중 취업주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들이 속해 있는 직업의 종류인 반면, 비취업주부의 행복감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요인은 그들 자녀의 성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지원은 취업 · 비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었고, 두 집단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지원은 배우자로부터의 지원이지만 그 양과 질에 따른 효과는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또한, 취업주부에게는 사회적 지원의 전반적인 양이, 비취업주부에게는 그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그들의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한국의 취업 · 비취업주부들이 처해 있는 몇 개의 독특한 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순종과 봉사로 요약될 수 있었던 여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은 한국사회의 근대화 · 서구화 등의 급격한 흐름 속에서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여성과 관련된 혹은 여성

이 보이고 있는 이런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급증하고 있는 여성의 취업이다. 자료에 따르면 1975년에서 1995년 사이에 남성의 취업은 77.4%에서 76.5%로 감소한데

반해 같은 기간 동안 여성의 취업은 40.4%에서 48.3%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6). 이러한 변화는 특히 기혼여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져 기혼 여성의 취업률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미혼여성의 취업률을 앞질렀으며 (박애선, 1992; 노미혜, 김영옥, 문유경, 1994; 한국여성개발원, 1994) 그 증가는 여성 취업의 일반적 증가와 더불어 계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던 여성들이 그 범주 밖 세계로 나감으로써 과거 여성들과는 다른 육체적·심리적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여성취업과 관련지어 중요하게 고찰되어야 할 점은 이와 관련된 가시적인 변화뿐 아니라, 취업이라는 경험이 여성의 심리적 측면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여성 취업이 가족 구성원·결혼 관계·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주목해 온 반면, 취업이 여성 자신 특히 취업주부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았다. 1980년과 1997년 사이에 발표된 정기간행물과 논문의 목록(국회도서관, 1980-1997)에 따르면, 모성 취업과 관련된 제반 요인들(모성 취업의 조건, 모성 취업과 양육, 모성 취업에 대한 태도, 모성 취업과 시간 관리)은 비교적 넓게 연구되어 온 반면, 취업이라는 경험에 따라 취업 주부들이 맞게 되는 정신적·심리적 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취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들은 크게 2가지의 상반되는 결과들을 보인다. 그 한 갈래는 “결핍 가설 (scarcity hypothesis)”로, 또다른 하나는 “증대/확대 또는 역할 누적 가설 (enhancement/expansion, or role-accumulative hypothesis)”로 설명될 수 있다(Korabik, McDonald, & Rosin, 1993). 결핍 가설에서는 인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개

인이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 늘어나면 그것은 스트레스나 역할 갈등, 역할 과부하(role overload) 등의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일련의 연구들은 취업주부들은 비취업주부들에 비해 보다 많은 심리 신체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한다(Kim & Kim, 1977; Greenglass, 1987; McBride, 1988; Hemmelgarn & Laing, 1991; Goldberg, Grrenberg, Hamill, & O'Neil, 1992; Houston, Cates, & Kelly, 1992; Snapp, 1992; 초의수, 1994). 반면, 확대 가설은 부과된 많은 역할들은 개인의 자존심·주체성·사회적 지위 등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에너지 자원을 오히려 증가시킨다고 설명한다. 이를 지지하는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들은 그들의 늘어난 역할 수행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취업여성은 비취업여성에 비해 양호한 정신건강(Kessler & McRae, Jr., 1982; 장재정, 1987; 남유리, 1989), 적은 역할 과부하(이숙현, 1990; Houston, Cates, & Kelly, 1992), 높은 생의 만족도(박숙자, 1992; Maynard, 1993)를 느끼고 있음을 밝힌다.

취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와 같은 상충되는 결과들은 어디에서 근거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최근 몇몇의 연구자들은(Baruch, Biener, & Barnett, 1987) 여성 취업 연구에 있어 중시되어야 할 것은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그녀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의 수가 증가 혹은 감소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여성과 그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요인들 그리고 그 요인들의 상호작용이라고 주장한다. 그 요인들로는 취업·비취업여성의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현 역할을 택하게 된 자발성·일반적 성역할에 대한 태도 등의 성격적 변인들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직업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과 그것이 주는 보상이나 근심 정도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중요한 그러나 쉽게 간과되어 온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취업 여성이 혹은 비취업여성이 가족, 주변 사람, 또는 사회적 여러 환경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느냐 하는 점이다. 그 도움은 물질적·정신적·육체적인 여러 형태를 띠 수 있고 그 도움의 양적·질적 정도는 취업여성이 혹은 비취업여성이 여러 역할 수행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러 형태의 이러한 도움들은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져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사회구조적 변인과 여성취업

먼저, 상이한 연령 집단의 취업주부들이 각기 다른 경험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대체로 연령의 증가와 취업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사이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젊은 취업여성들은 연령이 많은 취업여성들에 비해 자신들의 일에 더 만족해하거나 역할갈등을 적게 느끼고 있었다(정혜정, 1985). 이에 대한 원인을 보여주는 결과들에 따르면, 연령이 많은 취업여성들은 젊은 취업여성들에 비해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고(이순형, 1990), 가정일에 대한 남편의 도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이연숙, 이순형, 유가효, 조재순, 1991).

반면, 취업주부들의 교육 연한과 그들의 경험 사이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높은 교육수준이 취업주부들에게 제공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시사하면서, 교육수준이 높은 취업주부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취업주부들에 비해 자신의 직업에 더욱 만족하고 역할갈등을 적게 경험하고 있으며(임정빈, 정혜정, 1987), 많은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음이 밝혀졌다(Hibbard & Pope, 1992). 그러나 다른 집단의 연구들은 주부들의 교육연한이 그들

의 심리신체적 안녕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었다(이순형, 1991). 나아가 교육수준이 높은 취업주부들은 그렇지 않은 취업주부들에 비해 자녀양육에 대해 더욱 걱정을 하고(이연숙 외, 1991), 전반적인 생만족감을 적게 느끼고 있기도 했다(Loscocco & Spitze, 1990).

주부들이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의 많고 적음은 그들이 겪는 심리적 경험에 또 다른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들은 경제적 풍요의 효용성을 보여주면서 소득수준이 높은 주부들은 그렇지 않은 주부들에 비해 그들의 생활에 보다 만족하고 역할 갈등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적게 느끼며(이연숙, 1994), 또한 사회적 지원을 보다 많이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이연숙 외, 1991).

직업의 종류와 취업여성들이 겪고 있는 경험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하나의 연구문제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여성들이 직업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직업적 가치(occupational prestige)에 따라 상이한 경험들을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연구들은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전문직 여성들이 비전문직 여성들에 비해 가정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고(도미향, 최외선, 1990) 보다 적은 역할갈등을 겪고 있음을 보고한다(안선영, 1987). 또한, 서비스직과 판매직의 여성들은 다른 직업군의 여성들에 비해 높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보다 많이 겪고 있었다(최선희, 1988). 이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이들 직업이 사람을 많이 상대해야 하며 그로 인해 대인관계에서의 기술이 보다 많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다른 연구들은 상반되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전문직 여성들은 비전문직 여성들에 비해 보다 불안해하고, 직장과 가정일에 대해 보다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Marshall & Barnett, 1993). 이는 전문적이 비전문직에 비해 갖고 있는 높은 책임의식, 경쟁의식 등이 여성들

에게 보다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Marshall & Barnett, 1993).

취업여성의 경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는 마지막 사회구조적 변인은 그들이 안고 있는 자녀양육의 부담 정도이다. 어머니로서의 역할 나아가 취업주부로서의 역할은 한 여성이 갖고 있는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녀의 수와 연령을 함께 고려한 연구들에 따르면, 자녀의 존재 자체 혹은 자녀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취업주부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다기보다는 특정 연령층의 자녀들이 이들에게 보다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취학 아동이 있는 주부들의 경우 취학아동들을 둔 주부들에 비해 보다 양육에 있어서의 큰 어려움을 느끼고(양승주, 1993) 보다 역할갈등을 많이 겪고 있었다(정혜정, 1985; 임정빈, 정혜정, 1986). 그러나, 미취학 아동(만 6세 이하의 아동)과 달리 취학 아동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정도의 부담을 준다고 밝힌 일부 서구사회에서의 결과들(Coverman, 1989)과 달리 우리 나라 주부들이 겪고 있는 자녀의존도에 따른 부담은 특이한 점을 지니고 있다. 즉, 학교에 다니는 연령의 자녀들은 미취학 아동과 마찬가지로 혹은 미취학 아동보다 더 큰 부담을 취업주부들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관찰되고 있는 학업성취에의 압력과 이에 따라 여성들이 자녀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의 심적 부담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혜정(1985)과 안선영(1987)은 취학아동이 있는 취업주부들은 미취학 아동이 있는 취업주부들보다 큰 역할갈등을 느끼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다양한 사회구조적 변인들과 여성취업과의 관계에 대한 윤곽을 잡아 주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성을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령, 학력수준, 임금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공변성이 예상되지만 대다수의 연구들은 이에 대한 지적없이 결론을 맺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사회구조적 변인이 취업여성의 심리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지원과 여성취업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의 연구 관심에 따라 지나칠 정도로 다양하게 정립되어져 왔다. 각 학자들은 사회적 지원의 중요 개념을 각기 다르게 꼽고 있는데, 이에겐 정보적 지원 (Cobb, 1976), 정서적 지원(Cobb, 1976; Kahn, Antonucci, 1980), 수단적(instrumental) 지원 등이 포함된다. 반면, 사회적 지원의 초구성적(metaconstructive) 특성을 지적하면서 학자들은(Weiss, 1974; Barrera, 1986; Lin, Dean, & Ensel, 1986; Vaux, 1988; Greenglass, 1993) 사회적 지원이란 한 두 가지의 요인으로는 설명될 수 없고 여러 요인들이 합해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여러 갈래의 주장들을 종합할 때, 사회적 지원이란 "하나의 광범위한 과정으로 이 과정 속에서 한 개인이 다양한 상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주고받는 행위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정신·신체적 결과"라고 요약될 수 있다.

여성 취업과 사회적 지원의 관계를 다루면서 연구들은 두 가지의 갈래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왔다. 그것은 여성 취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from female employment)과 여성 취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for female employment)이다. 전자의 입장(예: Dunlop, 1981; Hibbard & Pope, 1992; Aston & Lavery, 1993)에선 '과연 취업이라는 경험이 여성들에게 더 늘어난 혹은 향상된 사회적 지원으로 작용하는가? 즉, 가정이란 태두리를 벗어나 더 넓은 사회망을 갖게 됨으로써 그리고 추가된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에 비해 보다 나은 사회적 지

원을 경험하게 되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이 접근에서는 사회적 지원을 여성 취업의 종속적 결과로 보고 그 변화된 사회적 지원 과정이 여성의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데 주력한다. 반면, 또하나의 접근(예: Pines & Kafry, 1981; Hirsch & Rapkin, 1986; Macewen & Barling, 1987)에서는 ‘일하는 여성들에게 사회는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해주는가? 그 사회적 지원의 유무 혹은 질적 차이에 따라 취업 여성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 등의 문제를 다룬다. 여기서의 사회적 지원이란 취업 여성이 경험하는 역할 갈등이나 역할 과부하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부정적 결과 사이에서 매개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갖는 이 두 가지 기제는 많은 경우 거의 구분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취업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관련을 갖게 된다.¹⁾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여성 취업과 사회적 지원의 관계를 구분 없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사회적 지원과 여성취업간의 관계를 다룬 논문들은 사회적 지원이 취업여성의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밝히고 있다. 먼저, 사회적 지원은 취업 여성의 권태감과 부정적 관계를 가지며(Pines & Kafry, 1981),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원은 여성 사회 사업가와 간호사들의 좋은 정신·신체건강과 연결됨(Marshall & Barnett, 1992)이 밝혀졌다. Crokenberg(1988)의 연구에서도 취업 주부와 비취업주부 모두는 만족할 만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건강한 심리적 상태를 나타냈으며, 직장·가정에서의 사회적 지원은 취업 여성의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 낮은

수준의 역할 갈등과 관련되어 있었다(고은숙, 1992; Houston et al., 1992; Parasuraman, Greenhaus, & Granrose 1992). 한편, 특정 형태의 사회적 지원은 다른 형태의 지원보다 더욱 효과적인 듯한데, 사회적 지원 중 특히 정서적 지원은 취업 여성의 높은 직업 만족도와 관련되어 있었다(Kissman, 1990). Rudd와 McKenry(1986)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지원과 아내·어머니 직업에 대한 가족들의 호감적 태도가 가족들의 가사 일에 대한 도움보다 취업주부의 심리적 건강을 결정하는데 더욱 중요함이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아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취업주부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이숙현(1990)과 Hemmelgarn과 Laing(1991)의 연구에서는 만족할 만한 대리 양육의 경험은 취업주부의 낮은 역할 갈등과 관계가 있었다.

사회적 지원은 취업 여성의 심리적 건강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종단적 연구에서 Hibbard와 Pope(1992)은 과거 직장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을 받은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15년간의 건강 체크에서 유의하게 낮은 사망률을 나타냈음을 보였다. 또한, 월경통을 호소하는 취업여성보다 그렇지 않은 여성을 비교한 한 연구(Lee & Rittenhouse, 1992)에서, 월경통을 느끼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신체·심리적 건강에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사회 생활과 사회적 지원 과정을 더욱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었다. Aston과 Lavery(1993)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원은 취업 여성의 심리적 안녕뿐 아니라 그들이 갖게 되는 여러 신체적 증세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한편, 취업 여성 특히 취업 주부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회적 지원 가운데 그 중요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인 듯하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여러 타입의 그리고 여러 출처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각기 다른 형태

1) 예를 들어 한 기혼여성이 취업을 하였고 그 직장에서 절친한 친구를 사귀었다고 하자. 이 친구를 통해 가정일과 회사일을 병행하는데 있어 조언을 얻고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도 받았다고 하면, 이 여성은 취업을 통해 지원을 얻은 동시에 취업생활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기도 하다.

의 효과를 나타냄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많은 수의 연구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취업주부에게 있어 배우자 지원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보고한다. 먼저, 남편의 존재 자체는 취업주부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Hoffman, 1989), 취업주부가 배우자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을 때 그 주부는 다른 가족과의 관계에서 더욱 큰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Parasuraman et al. 1992). 또한, 배우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부정적 지원을 할 때 (즉, 부인이 일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경우), 취업 주부들은 결혼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냈다(임정빈, 정혜정, 1986; Hirsh & Rapkin, 1986; 김경숙, 1988; Feinauer & Williams-Evans, 1989; 도미향, 최외선, 1990). 또한, 배우자의 지원은 취업주부의 여러 정신건강 지표와도 중요한 관계를 보여, 높은 배우자 지원은 취업주부의 높은 생의 만족도(이연숙, 이순형, 유가효, 조재순 1991), 낮은 역할 갈등(정혜정, 1985; 안선영, 1987), 정감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김윤숙, 1989), 그리고 낮은 신체적·심리적 증세들(이연숙 외, 1991)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상에서 소개된 연구들은 일관적으로 사회적 지원의 긍정적 측면 혹은 효과들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Suls, 1982; Rook, 1984; Dressler, 1985; Belle, 1982a, 1982b, 1987) 사회적 지원이 갖고 있는 예상치 않았던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해 조심스런 주의를 기울인다. 먼저,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즉, 사회적 지원의 부족)은 사회적 지원의 부정적 측면을 경험했다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House, Umberson, & Landis, 1988; Snapp, 1992). 또한 사회적 지원의 과정에서 경험될 수 있는 몇 가지의 구체적인 부정적 요소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지원의 딜레마, 스트레스의 전염, 지원의 격차 등이다. 사회적 지원의 딜레마란 사회적 지원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한 개인의 사회적 지원망이 늘어나

게 되면 그 개인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특정 지원망과 갖는 관계 시간 혹은 긴밀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의미한다(King, Winett, & Lovett, 1986). 또한 Belle(1982a)이 지적하듯이, 사회적 지원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절·배반·의존감등도 지원과정에서 쉽게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다. 반면, 스트레스의 전염("contagion of stress," Wilkins, 1974, Belle, 1987에서 재인용)은 사회적 지원망 내에서의 가까운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 한 개인이 역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지원의 격차("support gap," Belle, 1982b)는 주고받는 사회적 지원의 양과 질이 동일하지 않아 한 개인이 지원을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할 때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과연 사회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성의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동일인가 혹은 상이한가에 대해 검증해 보았다. 또한, 취업이라는 경험이 여성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지고 또한 사회적 지원의 과정도 그 변인들에 따라 다르게 전개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부들의 여러 사회구조적 변인들과 사회적 지원, 심리적 안녕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았다.²⁾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지원에서 많고 만족스러운

2) 본 연구의 궁극적인 연구문제는 사회적 지원의 정도에 따른 취업, 비취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을 살펴보는 것이다. 비록 사회구조적 변인들에 따른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에 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지지만 위의 연구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사회구조적 변인들은 그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통제변인으로 취급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조적 변인과 심리적 안녕에 관한 가설은 따로 제시되지 않고, 또한 사회적 지원과 심리적 안녕간의 관계를 다룰 때 모든 사회구조적 변인들은 통제될 것이다.

지원의 경험은 취업, 비취업의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 취업, 비취업주부는 사회적지원의 과정에서 더 많은 부정적 경험을 한 경우 낮은 정도의 심리적 안녕을 보일 것이다, 3) 배우자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원은 기타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지원보다 취업, 비취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원의 양이 만족도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취업주부에게는 얼마나 만족스러운 지원을 받느냐가 심리적 안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방법

대상

대상은 결혼을 했고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최소한 한 명의 자녀를 둔 주부들로 선정하였다. 취업주부는 현재 어떤 종류든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비취업주부는 현재 임금을 위한 어떤 사회 활동도 하고 있지 않은 전업주부를 말한다. 지역은 서울과 서울 근교의 몇 도시 (D시, I시, S시)로 제한되었고, 이들은 학교 · 교회 · 회사 · 지역 사회 등의 통로를 통해 접촉되었다. 1995년 10월 1일에서 10월 15일의 기간 동안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총 140부 중 108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예비조사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와 연구방법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 같은 해 11월 1일에서 12월 4일의 기간 동안 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총 700부의 설문지 배포를 통하여 589명의 응답을 회수하였다(회수율 84.1%). 31부의 불충분한 응답을 제외한 558명의 응답(취업주부 263명, 전업주부 295명)이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도구

사회 구조적 변인

사회 구조적 변인으로 연령 · 교육연한 · 직업의 종류 · 근무 시간 · 주부 자신의 수입 · 가정 총 수입 · 자녀의 수 / 연령 / 성별 · 가족 형태가 조사되었다(이탤릭은 취업주부에게만 질문된 요인임). 직업의 종류는 선행연구들(Stevenson & Hoisington, 1987; 고은숙, 1992; 대한통계협회, 1992; U.S. Department of Commerce, 1994)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생산 노무직 · 서비스직 · 판매직 · 사무직 · 전문 관리직의 5가지로 분류되었다. 근무 시간은 주부가 종일제로 일하는가 혹은 시간제로 일하는가에 대한 구분인데, 선행연구들(Houston, Cates, & Kelly, 1992; 노동부, 1985; 대한통계협회, 1992)의 분류를 따라 주당 32시간 이상 일하는 주부는 종일제로, 32시간 미만 일하는 주부는 시간제로 분류되었다. 자녀의 성별은 3가지 범주로 나뉘어졌는데, 1은 아들만을 둔 경우, 2는 아들과 딸을 함께 둔 경우, 3은 딸만을 둔 경우를 말한다. 가족 형태는 핵가족 · 부계 확대 가족(남편의 부/모와 남편 · 아내 · 미혼의 자녀) · 모계 확대 가족(아내의 부/모와 남편 · 아내 · 미혼의 자녀) · 비동거 확대 가족의 4가지로 분류되었다. 비동거확대가족(non-residential extended family)은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살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경제적 · 육체적 형태의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가족 형태를 말한다. Wong(1985)의 기준에 따라, 주부의 가족과 부모(시댁 부모 혹은 친정 부모) 가족이 1) 가까운 이웃에 살거나, 2) 일주일에 3번 이상 만나거나, 3) 정기적으로 경제적 · 육체적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3가지의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할 때 비동거 확대 가족으로 분류되었다.

사회적 지원

주부들이 경험해 온 사회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의 원천(source) · 양(amount) · 만족도 · 부정적 경험정도가 조사되었다. 문항들은 여러 사회적 지원 척도들(SSQ, Sarason, Levine, Basham, & Sarason, 1983; SSB, Vaux, Riedel, & Stewart, 1987; ASSIS, Barrera, 1981)로부터 선별 · 수정되어 제작되었다. 척도는 6가지 측면의 사회적 지원(감정적 도움 · 긍정적 반응 · 육체적 도움 · 물질적 도움 · 조언 · 사회적 참여)에 대한 15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서 전업주부는 4개의 지원원천(배우자, 가족이나 친지, 친구, 기타)에 대해 응답하였고 취업주부는 5개의 지원 원천(배우자, 가족이나 친지, 친구, 직장동료나 상사, 기타)중 제시된 지원을 준 사람이 있는지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지원의 수는 각 지원 원천들에 대해 따로따로 그 수가 산출되었다. 또한, 각 15개의 문항에서 피험자가 각 지원의 원천으로부터 받은 지원에 어느 정도 만족하였는지를 1(매우 불만족)에서 5(매우 만족)의 척도를 통해 조사하였다. 각 지원 원천에 대한 만족도는 지원의 수로 나뉘어졌고 따라서 각 지원의 만족도는 1에서 5의 범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원 과정 중에 겪은 부정적 경험의 정도는 1(전혀 그렇지 않았다)에서 5(항상 그랬다)의 척도를 지닌 5 문항(범위: 5-30)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적 지원의 딜레마 · 스트레스의 전염 · 지원의 격차 · 상호교환 법칙의 붕괴 · 사회적 지원의 대가에 대해서였다.

심리적 안녕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은 주관적이고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감을 말하며 한 개인이 느낀 “인생 전반 혹은 인생 전체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Andrews & Robinson, 1991, p. 61)을 의미한다. 심리적 안녕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General Well-Being Schedule

(GWB) (Fazio, 1977)이 사용되었다. GWB는 모두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는 6지선다의 14문항, 0에서 10사이의 측정선을 가진 4문항, 그리고 자기평가 행동 항목의 15문항이 포함된다. 총 33문항 중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자기 행동 평가에 대한 문항을 제외한 21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는데(범위: 38-156), 이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혹은 뇌 전문가와의 면담과 같은 행동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심리적 안녕을 측정하는 보통의 행동 양식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GWB의 한국말 번역을 위해서는 번역 · 역번역의 과정(Shin, 1993)이 사용되었다. 역번역된 문항들과 원래의 GWB문항들이 일치하는가를 검토한 1차 검토에서 문항들은 66.7%의 일치율이 나타났고, 2차 검토에서 역번역된 문항과 원래 문항들 사이에는 90.5%의 일치율이 나타났다. 1, 2차 과정을 통해 일치되지 못한 나머지 문항들에 대해서는 연구자 · 역번역자가 원래 문항과 역번역된 문항들을 함께 비교 검토하면서 최종 어휘들을 선정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GWB의 높은 내적일치도와 신뢰도(Fazio, 1977)가 보고되었으며, 다른 정신건강 척도 특히 우울 척도와 높은 상관을 가졌음이 밝혀진바 있다(Andrew & Robinson, 1991). 본 연구의 예비조사(n=88명)에서는 Cronbach alpha = .90의 내적 일치도를, 본 조사(n=558명)에서는 alpha = .83의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결 과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비교

표 1에서 보여지듯이 본 연구의 대상들은 대체로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취업주부의 경우 우리나라의 평균(1993년 현

표 1. 취업주부, 비취업주부의 요인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t값

변 인	취업주부(n=263)	비취업주부(n=295)	t-test
사회구조적 변인			
연령	3.77세(SD=6.61)	38.70세(SD=7.03)	t=3.36***
교육연한	12.95(SD=2.94)	12.77년(SD=2.55)	n.s.
직업종류	생산노무직 25명(9.6%) 서비스직 34명(13.1%) 판매직 68명(26.2%) 사무직 54명(20.8%) 전문관리직 79명(30.4%)		
근무시간	종일제 206명(79.5%) 시간제 53명(20.5%)		
주부수입 가족수입	118.63만원(SD=87.59) 278.86만원(SD=237.34)	200.25만원(SD=102.61)	t=4.99***
자녀수	1.87명(SD=.70)	2.06명(SD=.73)	t=3.08**
자녀연령	9.75세(SD=6.24)	11.69세(SD=6.79)	t=3.48***
자녀성별	아들(들)만 82명(31.6%) 아들(들)+딸(들) 101명(38.9%) 딸(들)만 76명(29.3%)	72명(25.1%) 132명(49.1%) 74명(25.7%)	n.s.
가족구조	핵가족 154명(59.0%) 부계확대가족 45명(17.2%) 모계확대가족 12명(4.6%) 비동거확대가족 50명(19.2%)	221명(76.5%) 37명(12.8%) 12명(4.2%) 19명(6.6%)	$\chi^2=25.31***$
성역할태도	37.83(SD=8.83)	43.11(SD=10.50)	t=6.35***
역할의 질			
직장인 역할	.70(SD=.74)		
아내 역할	.90(SD=1.01)	.84(SD=.97)	n.s.
어머니 역할	.95(SD=.81)	.91(SD=.80)	n.s.
심리적 안녕	101.53(SD=14.17)	102.02(SD=14.42)	n.s.

** p < .01 *** p < .001

재 취업여성의 9.64%, 한국여성개발원, 1994)에 비해 전문관리직의 해당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그들의 평균 임금도 우리나라의 평균(1995년 현재 35-39세 취업여성의 경우 월 89만원, 한국여성개발원, 1996)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주부들은 비취업주부들에 비해 나이가 적었으며, 보다 많은 가족 수입을 보고했고, 더 적은 수의 그리고 더

어린 자녀들을 갖고 있었다. 두 집단은 이루고 있는 가족구조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취업주부들은 핵가족, 비동거확대가족, 부계확대가족, 모계확대가족 순의 가족구조를 이루고 있는 반면, 비취업주부에선 핵가족, 부계확대, 비동거확대, 모계확대가족의 순서를 보였다. 이는, 비취업 주부의 경우에서보다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비동거 상태인 부모에게 경제, 육체적 의존을 하는 것이 흔한

예이고, 두 집단 모두에서 친정부모와 사는 경우는 가장 드문 일임을 보여준다.

한편,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들은 모든 종류의 사회적 지원의 양과 만족도 그리고 심리적 안녕에 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사회구조적 변인과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

먼저, 선행변인 그룹들(사회구조적 변인들, 사회적 지원 변인들)간의 관련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적률상관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결과, 몇몇의 선행변인들은 서로 유의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들만을 결과와 논의 부분에서 밝히기로 한다.

다음으로, 사회구조적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배제한 가운데 각 사회구조적 변인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모든 중다회귀분석에서는 stepwise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취업, 비취업 집단에서 모든 사회구조적 변인들은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을 예견하는 선행변인으로 모두 한꺼번에 분석의 틀에 포함시켰다.

먼저 취업주부의 경우, 다른 사회구조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배제한 가운데 직업의 종류만이 이들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이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하여 ANCOVA를 실시하였고, 여기에서 직업의 종류를 제외한 기타 사회구조적 변인들을 통제할 채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주부들이 어떠한 심리적 안녕을 갖는가 검토하였다. 그 결과(표 3), 나머지 4개의 직업군에 속하는 여성들은 동일한 정도의 심리적 안녕을 보고한 반면,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주부들만이 다른 집단에 비해 보다 유의하게 낮은 정도의 심리적 안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서비스직 vs. 생산노무직: $t=-3.01, p<.01$, 서비스직 vs. 판매직: $t=-3.05,$

표 2. 각 사회구조적 변인들이 취업, 비취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변 인	취업주부		비취업주부	
	Beta	SE	Beta	SE
연령	.18	.38	.34	1.01
교육	-.09	.40	.01	.38
직업	.18*	.08		
근무시간	-.13	2.56		
주부수입	-.13	.01		
가족수입	.12	.01	8.42E-04	.01
자녀수	.01	1.75	-.29	1.32
자녀연령	.09	.40	-.39	.32
자녀성별	.11	.47	-1.71***	.44
가족구조	-.02	.89	-1.52	1.03
	R ² =.06		R ² =.07**	
	F(10,206)=1.32		F(7,261)=2.92**	

* $p < .05$ *** $p < .001$

표 3. 직업의 종류에 따른 취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

직업의 종류	심 리 적 안 녕	
	Observed M	Adjusted M
생산노무직	104.27	102.93
서비스직	90.16	90.23
판매직	103.64	104.29
사무직	101.64	101.39
전문관리직	104.16	105.03

Observed M.: 직종을 제외한 기타 사회구조적 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리적 안녕 평균

Adjusted M.: 직종을 제외한 기타 사회구조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된 후의 심리적 안녕 평균

$p<.01$, 서비스직 vs. 사무직: $t=-2.71, p<.01$, 서비스직 vs. 전문관리직: $t=-3.67, p<.001$).

비취업주부의 경우에도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사회구조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들을 통제된 후 사회구조적 변인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자녀의 성별만이 비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사회구조적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이 결과에 대해서 위의 직업 종류에서와 마찬가지로 ANCOVA를 통하여 기타 사회구조적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녀성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재검토하였다. 이 분석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는데(표 4), 딸만 가진 비취업주부들은 아들만 가진 비취업주부나($t=-3.46, p<.001$) 아들·딸을 함께 가진 비취업주부들에 비해($t=-3.06, p<.01$) 낮은 심리적

표 4. 자녀의 성별에 따른 비취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

자녀성별	Observed M	Adjusted M
아들(들)	105.27	104.76
아들(들)+딸(들)	103.15	103.57
딸(들)	96.95	96.04

Observed M.: 직종을 제외한 기타 사회구조적 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리적 안녕 평균
Adjusted M.: 직종을 제외한 기타 사회구조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의 심리적 안녕 평균

안녕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제까지 두 집단을 따로 따로 분석한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사회구조적 변인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가 취업, 비취업주부 집단간에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두 집단을 동시에 고려한 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구조적 변인들 중 두 집단에서의 공통변인만을 분석하였다.

계속적 변인(예: 연령, 교육연한)에 대해서는 일련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먼저 모든 다른 사회구조적 변인들을 모델에 포함시켰고, 다음으로 한 특정 사회구조적 변인, 집단, 마지막으로 특정의 한 사회구조적 변인과 집단간의 상호작용을 분석의 틀에 포함시켰다. 두 개의 범주적

변인들(자녀성별과 가족구조)의 분석을 위해서는 ANCOVA가 사용되었다. 여기에서는 기타의 사회구조적 변인들을 통제할 때, 하나의 사회구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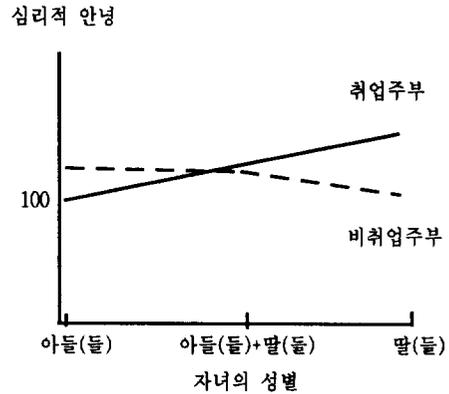


그림 1. 자녀 성별과 취업 여부가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변인, 집단, 하나의 사회구조적 변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을 각각 분석의 요인으로 포함시켰다.

그 결과, 자녀의 성별만이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자녀성별의 주효과($F=3.21, p<.05$)와 함께 집단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F=5.57, p<.01$). 이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주부가 다른 정도의 심리적 안녕을 보이지 않는데 반해, 비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아들을 갖지 않았을 경우 아들을 가진 엄마들에 비해 낮은 심리적 안녕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1).

사회적 지원과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

사회적 지원과 취업·비취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

먼저, 이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구조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할 때 사회적 지원과 취업주

부들의 심리적 안녕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분석에선 사회구조적 변인을 가장 먼저 분석의 틀에 포함시켰고 다음으로 특정 사회적 지원의 변인(예: 배우자 지원의 양)을 분석하였다. 결과(표 5)에 따르면 모든 사회구조적 변인들을 통제 한 상태에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은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예상되었듯이 사회적 지원의 과정에서 보다 많은 부정적 경험을 한 취업주부들은 그렇지 않은 주부들에 비해 보다 낮은 심리적 안녕을 보이고 있었다.

비취업주부 집단에서도 사회적 지원의 긍정적 인 효과가 나타났다(표 5). 다양한 사회구조적 변인들을 통제 한 가운데, 비취업주부들은 배우자로부터 보다 많은 그리고 만족스러운 지원을 받을 수록 보다 양호한 심리적 안녕을 경험하고 있었고, 가족과 친구로부터는 보다 만족스러운 지원을 받을 때(지원의 양은 무관)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고하였다. 반면, 기타 지원의 양과 만족도는 비취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취업주부들과서와 마찬가지로 비취업주부들이 사회적 지원의 과정에서 경험한 부정적 요인들은 그들의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원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가 주부들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을 동시에 고려한 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련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각 분석에서는 먼저 사회구조적 변인들을 모두 하나의 집합으로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한 사회적 지원 변인, 집단, 마지막으로 한 사회적 지원 변인과 집단의 상호작용변인을 분석의 틀에 첨가시켰다.

위의 결과에서 예상할 수 있었듯이 다양한 사회적 지원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는데, 지원의 양에서는 배우자지원의 주효과(R^2 -change=.08,

$p<.001$) · 가족지원의 주효과(R^2 -change=.02, $p<.05$)가, 지원의 만족도에서는 모든 4가지 지원 원천에서의 주효과가 나타났다(배우자지원:

표 5. 사회구조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 한 후 취업·비취업주부들의 사회적 지원과 심리적 안녕간의 관계

변 인		R ² -change	Beta
(사회구조적 변인들)			
취업주부			
배우자지원	양	.160***	.426***
	만족도	.076***	.286***
가족지원	양	.019*	.153*
	만족도	.033**	.194**
친구지원	양	.006	.078
	만족도	.020*	.144*
동료지원	양	.018*	.145*
	만족도	.005	.072
기타지원	양	.004	.068
	만족도	.029*	.176*
부정적 경험		.027*	-.169*
(사회구조적 변인들)			
비취업주부			
배우자지원	양	.030**	.177**
	만족도	.078***	.285***
가족지원	양	.004	.070
	만족도	.041***	.210***
친구지원	양	.002	.053
	만족도	.023**	.155**
기타지원	양	.001	.041
	만족도	.010	.105
부정적 경험		.050***	-.228***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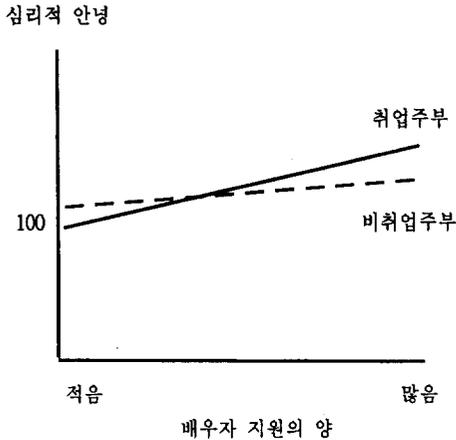


그림 2. 배우자지원의 양과 취업여부가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R^2 -change=.09, $p < .001$, 가족지원: R^2 -change=.05, $p < .001$, 친구지원: R^2 -change=.02, $p < .001$, 기타지원: R^2 -change=.02, $p < .01$.

또한, 사회적 지원의 부정적 경험의 주효과가 나타났다(R^2 -change=.05, $p < .001$). 이와 더불어, 하나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 지원의 양에서였다(R^2 -change=.01, $p < .05$).

이는 배우자로부터의 많은 양의 지원은 취업·비취업주부 모두의 높은 심리적 안녕과 관계가 있으나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그림 2).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양한 지원의 종류에 대해 더 많고 질 높은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경우 취업, 비취업주부는 높은 심리적 안녕을 경험한다고 예상한 가설 1과, 지원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주부들의 안녕감을 저하시킨다고 예상한 가설 2가 지지되었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지원이 취업·비취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

이제까지는 각 각의 사회적 지원 원천들이 취업·비취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덧붙여, 선행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몇 가지의 관련된 의문점에 제시될 수 있다. 이는 첫째, 다양한 사회적 지원 종류들이 주부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서로 다른 정도의 효율성이며, 둘째, 사회적 지원의 양(객관적 제공 정도)과 만족도(주관적 수용 정도) 간의 효율성 비교에 관해서이다. 이 두 의문에 대한 검증은 두 집단에서 각각 이루어졌고 모든 분석에서 사회구조적 변인들의 영향력은 통제되었다.

먼저,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지원 중 어느 것이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모든 사회구조적 변인들을 함께 분석의 틀에 포함시켰고 다음으로 모든 사회적 지원 종류들(부정적 경험은 제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사회적 지원 종류만이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과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지원의 양($r^2=.32$, $p < .001$)과 기타지원의 만족도($r^2=.15$, $p < .05$)였다.

비취업주부의 집단에서도 사회적 지원 종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취업주부에서와 다르게 비취업주부에서는 배우자로부터의 지원 양이 아니라 그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만이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되어 있었다($r^2=.16$, $p < .01$).

이상의 결과에서 다른 지원의 종류에 비해 배우자로부터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예상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두 번째로,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감에는 그들이 받는 지원의 “양”과 그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 중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한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분석은 지원의 양과 만족도의 평균값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평균값은 각 지원 원천에서의 횟수와 만족도를 지원 원천의 수(취업주부에서는 5가지, 비취업주부에서는 4가지)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먼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취업주부집단에서 지원의 양과 만족도가 갖는 상대적 효율성의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모든 사회구조적 변인들을 집합으로 함께 분석의 틀에 넣었고, 다음으로 평균 지원 양과 평균 지원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표 6), 취업주부에서는 지원의 양과 지원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 모두가 이들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비취업주부 집단에서도 유사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취업주부에서와는 다르게 제공되는 지원의 양보다는 그 지원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가 비취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표 6). 이 결과는 취업주부에게서의 지원의 양과 비취업주부에서의 지원의 질의 중요성을 예상했던 가설 4를 지지하고 있다.

표 6. 사회구조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지원의 양과 만족도가 취업·비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변 인	Beta	Partial r ²
(사회구조적 변인들)		
취업주부		
사회적 지원의 양	.025**	.196**
사회적 지원의 만족도	.171*	.170*
비취업주부		
사회적 지원의 양	.076	.077
사회적 지원의 만족도	.234***	.234***

*p<.05 **p<.01 ***p<.001

논 의

본 연구는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을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구조적 변인과 그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의 관계 속에서 살

펴보았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예상과 맥을 같이 하며 결과들은 주부의 취업 여부 하나 만으로는 그들의 심리적 안녕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신,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은 주부들이 갖고 있는 몇몇의 사회구조적 변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 영향력은 주부의 직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취업주부·비취업주부가 제공받는 사회적 지원은 대체로 이들의 심리적 안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구체적인 지원 종류에 따른 영향력은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사회구조적 변인과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

본 연구에서 몇 개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부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변인들은 그들의 심리적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에 유일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그들이 현재 속해 있는 직업의 종류였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직(요식숙박업 종사자·조리사·미용사·파출부·청소부 등)에 종사하는 주부들은 기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주부들에 비해 낮은 정도의 심리적 안녕을 경험하고 있었다. 먼저 이 결과는 서비스직 주부들의 낮은 임금 혹은 낮은 교육수준등에서 연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에서는 그 설명력을 잃는데 위의 결과들은 주부들이 갖고 있는 다른 모든 사회구조적 변인들(교육연한, 임금을 포함)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밝혀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신 이 결과는 서비스직 자체가 갖고 있는 보다 높은 스트레스 수준 때문이라는 해석이 타당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직은 전문성에 있어 전문직 혹은 관리직과 반대되는 개념의 직업군이며(노동부, 1985; Stevens & Hoisington, 1987), 비전문직에서는 전문직과 비교하여 자율성의 부족이 그 특징으로 꼽아질 수 있다. 또한 서비스직은 기본적으로 높은 인간관계 경영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박애선 외, 1989) 서비스직의 여성들은 다른 직업군의 여성들에 비해 그들의 직업생활에서 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결과는 종합적으로, 비전문직에 비해 전문직이 취업여성의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 (안선영, 1987; 김경숙, 1988; Coverman, 1989; 도미향 & 최외선, 1990; 고은숙, 1992; Snapp, 1992; Aston & Lavery, 1993; 초의수, 1994)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비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을 맺고 있는 유일한 사회구조적 변인은 그들 자녀의 성별이었다. 또한 자녀의 성별은 주부의 취업여부와 상호작용을 하며 그들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변인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취업주부들은 그들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데 반해 비취업주부들 중 딸만을 가진 주부들은 그렇지 않은 주부들에 비해 분명하게 낮은 정도의 심리적 안녕을 경험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이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 이유는 여성취업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성별을 고려해야 할 변인 자체로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남아선호사상의 맥락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들만을 가진 주부가 아니라 **최소한 한 명의 아들을 가진 주부들이 아들을 갖지 못한 주부들에 비해 높은 정도의 심리적 안녕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딸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아들의 존재만이 비취업주부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남아선호사상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면서 상관관계에서의 결과는 두 집단 모두에서 자녀의 수와 성별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보면, 많은 수의 자녀(본 연구의 평균 이

상인 3 또는 4명의 자녀)를 둔 주부들의 경우 그들의 첫째 혹은 둘째 자녀는 딸인 반면 셋째 혹은 넷째 자녀는 아들인 경우가 많다. 즉, 현 우리나라의 극심한 남녀 아동의 성비 불균형 (특히 셋째 혹은 넷째 자녀의 경우, 중앙일보 1996, 10, 2)을 반영하면서 본 연구의 주부들은 아들을 가진 경우와 다르게 딸만을 가진 경우에 아들을 생산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아선호사상에서의 논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을 남겨 놓고 있다. 이는 남아선호의 영향력이 왜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전업주부에게서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략 몇 가지의 논의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가 아들 출산에 대해 가족으로부터 받는 압력의 정도가 고려될 만하다. 위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비취업주부들이 부계확대가족에 속해 있는 비율은 취업주부들에 비해 높았다. 따라서, 취업주부들에 비해 비취업주부들은 아들에 대한 가치 평가를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보다 빈번히 혹은 보다 강도 높게 전해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상관관계 결과에 염두를 둘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자녀의 성별과 사회적 지원간의 관계이다. 비취업주부에서와 다르게 취업주부들은 그들이 딸만 가진 경우에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에 보다 만족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가족 또는 친지”의 지원은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의 지원인지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부들이 핵가족에 살고 있고(취업주부의 59%, 비취업주부의 76.5%) 배우자의 지원은 구분하여 분석되었음을 고려할 때 가족 또는 친지로부터의 지원은 많은 경우 “자녀들”로부터의 지원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는 비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자녀로부터 오는 사회적 지원의 질이 그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은데 반해,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아들을 가졌을 경우보다 딸을 가졌을

경우 그 자녀들로부터 보다 만족스러운 지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일하는 엄마들에 대한 이러한 딸들의 보다 만족스러운 지원은 이순형(1991)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녀의 연구에서, 일하는 엄마들 중 딸을 첫째 자녀로 둔 엄마들은 아들을 첫째 자녀로 둔 엄마들에 비해 심리적 피곤을 덜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 결과는 일하는 엄마들은 그들의 아들보다는 딸들과 보다 긴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Hoffman, 1989)과도 맥을 함께 한다. 마지막으로, 직업생활로부터 또다른 정체감을 얻고 있는 취업주부 스스로는 그렇지 않은 비취업주부들에 비해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검증되고 있지 않다.

사회적 지원과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하며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지원은 취업·비취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과 긍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회적 지원의 과정 속에 숨겨져 있는 부정적 측면들은 주부들의 -- 취업의 여부와 상관없이 -- 행복감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원 과정에서의 부정적인 측면들은 무시한 채 긍정적인 효과만을 강조해 온 선행연구들을 비판하는 최근의 목소리(Belle, 1982; Kessler & McLeod, 1984)에 구체적 근거를 제공하는 결과이다. 여성 연구에 있어서 사회적 지원 과정의 부정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특히 필요한데, 그 이유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보다 자주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 역할을 하게 되며 (Belle, 1982) 또한 보다 자주 사회적 지원에서의 부정적 측면에 노출(Belle, 1982; Kessler, & McLeod, 1984; Greenglass, 1993)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집단의 주부 모두에게 가족지원(배우자와 가족 구성원 지원)이 비가족지원(친구, 동료, 기타의

지원)보다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에 보다 자주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비서양사회에서는 가족 혹은 비공식적 지원이 비가족 혹은 공식적 지원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라는 선행연구들의 지적(Vaux, 1988)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앞서의 연구들에서 일관적으로 밝혀졌듯이 가족 지원 중에서도 배우자 지원의 중요성이 본 연구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남편으로부터의 지원은 전업주부보다는 현재 자신의 일을 갖고 있는 아내들의 행복감 심리적 안녕에 보다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Gilbert와 Rachlin(1987)은 맞벌이 부부는 가족 생활이나 성(性)에 대한 전통적 기준들에 일종의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맞벌이 가정에서의 배우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성역할 사회화와 싸워야만(p. 28)”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현 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과 동의는 맞벌이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얼마만큼의 지원이 제공되느냐와 주부들이 이 지원에 얼마만큼 만족하느냐는 주부들의 취업여부에 따라 그들의 심리적 안녕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많은 양의 지원이 반드시 지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p. 67) 라는 Vaux(1988) 지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취업주부들은 그들의 남편이 보다 “많은” 지원을 줄 때 보다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데 비해, 비취업주부들은 그들의 남편이 보다 “만족스러운” 즉 질 높은 지원을 줄 때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지원의 양과 만족도를 평균하여 대략적인 윤곽을 살펴보았을 때도 지원의 양과 만족도는 동일하게 취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되어 있었던 반면, 비취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은 평균적인 지원의 만족도와만 관련되어 있었다. 이 결과들로부터, 주부들은 취업 여부에 따라 사회적 지원 과정에서 다른 요소의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즉,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주부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양의 지원이 제공되는가가 중요한 반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양보다 질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원이 그들의 행복감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것이다. 이 결과는 취업주부들이 겪는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가사적 차이 즉 가사일에 대해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느끼는 비동등성(inequality)인 반면, 비취업주부들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정서적 측면의 결핍 즉 배우자의 “인정” 부족이라는 Vanfossen (1981)의 결과와 맥을 함께 한다.

본 연구는 취업이 기혼여성들의 심리적 안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양한 사회구조적 변인과 사회적 지원의 관계속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관련 변인 그룹들이 취업, 비취업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전체적 모습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단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사용함으로써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수행에 따르는 심리적 경험, 도움의 필요성들을 주부들의 직접적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참고 문헌

- 고은숙(1992). 취업부인의 스트레스, 내외통제성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국회도서관(1980-1995). 정기간행물 기사 색인. 서울: 국회도서관.
- 김경숙(1988). 기혼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윤숙(1989).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동부(1985). 노동통계연감. 서울: 노동부.
- 대한통계협회(1992). 한국표준직업분류. 서울: 통계청.
- 노미혜, 김영옥, 문유경(1994).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도미향, 최의선(1990).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응과 부부간 의사소통양식 및 그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69-85.
- 박숙자(1992). 첫 자녀 출생과 부부관계의 변화: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사회문화연구소.
- 박애선(1992). 슈퍼우먼 콤플렉스. 일곱 가지 여성 콤플렉스. 서울: 현암사.
- 안선영(1987). 취업주부의 가정 내 역할갈등과 관련변인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숙현(1990).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 관계의 변화. 가족학논집, 2, 1-27.
- 이순형(1991). 취업여성의 자녀보육형태와 심리적 적응. 여성연구, 9(4), 81-110.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이연숙, 이순형, 유가효, 조재순(1991). 기혼 취업여성이 지각하는 가정, 직업 생활 갈등 및 부적응 증상과 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3.
- 임정빈, 정혜정(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71-93.
- 장재정(1987). 중년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혜정(1985).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초의수(1994). 기혼 여성의 취업구조와 경제적 자립. 여성 연구 논집, 5, 7-60. 부산여대 여성문제 연구소.

- 한국여성개발원(1996). 1995 여성통계연보.
- Andrews, F. M. & Robinson, J. P.(1991).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In J. P. Robinson, P. R. Shaver, & L. S. Wrightsman(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Vol. 1 in Measures of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Series. San Diego: Academic Press.
- Aston, J. & Lavery, J.(1993). The health of women in paid employment: Effects of quality of work role, social support and cynic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Women and Health*, 20(3), 1-25.
- Baruch, G. K., Bierner, L., & Barnett, R. C.(1987). Women and gender in research on work and family stress. *American Psychologists*, 42(2), 130-136.
- Barrera, M., Jr.(1981). Social support in the adjustment of pregnant adolescents: Assessment issues. In B. H. Gottlieb (Ed.),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Beverly Hills: Sage.
- Belle, D.(1982a). Social ties and social support. In D. Belle(Ed.), *Lives in stress: Women and depression*. Beverly Hills: Sage.
- Belle, D.(1982b). The stress of caring: *Women as providers of social support*.
- Belle, D.(1987). Gender differences in the social moderators of stress. In R. Barnett, L. Bierner, & G. Barrel(Eds.), *Gender and stress*. New York: Free Press.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5, 300-317.
- Crockenberg, S. B.(1988). Stress and role satisfaction experienced by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 with young children.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9(2), 97-110.
- Dressler, W. W.(1985). Extended family relationship,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in a southern Black commun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6, 39-48.
- Dunlop, K. H. (1981).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care. *Professional Psychology*, 12(1), 67-75.
- Fazio, .A. F.(1977). *A concurrent validation study of the NCHI general well-being schedule*. Hyattsville, MD: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 Feinauer, L. L. & Williams-Evans, L.(1989). Effects of wife employment preference on marital adjustment.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7(3), 208-218.
- Gilbert, L. A. & Rachlin, V.(1987).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dual-career famili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5(1), 7-49.
- Goldberg, W. A., Greenberg, E., Hamill, S., & O'Neil, R.(1992). Role demands in the lives of employed single mothers with preschoolers. *Journal of Family Issues*, 13(3), 312-333.
- Greenglass, E. R.(1987). Anger in Type A women: Implications for coronary heart diseas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5), 639-650.
- Greenglass, E. R.(1993). Social support and coping of employed women. In B. C.

- Long & S. E. Kahn(Eds.), *Women, work, and coping: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workplace stress*. Montreal: McGill-Queen's Univ. Press.
- Gutek, B. A.(1993). Asymmetric changes in men's and women's roles. In B. C. Long & S.E. Kahn(Eds.), *Women, work, and coping: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workplace stress*. Montreal: McGill-Queen's Univ. Press.
- Hemmelgarn, B. & Laing, G.(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situational factors and perceived role strain in employed mothers. *Family Community Health, 14*(1), 8-15.
- Hibbard, J. H. & Pope, C. R.(1987). Employment characteristics and health status among men and women. *Women and Health, 12*(2), 85-102.
- Hirsch, B. J. & Rapkin, B. D.(1986). Multiple roles, social networks, and women's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237-1247.
- Hoffman, L. W.(1989).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in the two-parent family. *American Psychologist, 44*(2), 283-292.
- House, J. S., Umberson, D., & Landis, K. R.(1988). Structures and process of social support. *Annual Review of Sociology, 14*, 293-318.
- Houston, B. K. & Cates, D. S., & Kelly, K. E.(1992). Job stress, psychological strain, and physical health problems in women employed full-time outside the home and homemakers. *Women and Health, 19*(1), 1-26.
- Kahn, R. L. & Antonucci, T.(1980).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In P. B. Baltes & O. Brim(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pp. 253-280). Boston, MA: Lexington Press.
- Kessler, R. C. & McRae, Jr. J. A.(1982). The effect of wives' employment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ed men and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216-227.
- Kim, O. L. & Kim, K.(1977). A casual interpretation of the effect of mother's education and employment status on parental decision-making role patterns in the Korean family.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8*(1), 118-131.
- King, A. C., Winett, R. A., & Covett, S. B.(1986). Enhancing coping behaviors in at-risk populations: The effects of time-management instruction and social support in women from dual-earner families. *Behavior Therapy, 17*, 57-66.
- Kissman, K.(1990). Women in blue-collar occupations: An exploration of constraints and facilitators.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17*(3), 139-149.
- Korabik, K. McDonald, L. M., & Rosin, H. M.(1993).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among women managers. In B. C. Long & S. E. Kahn(Eds.). *Women, work, and coping: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workplace stress*. Montreal: McGill-Queen's Univ. Press.
- Lee, K. A. & Rittenhouse, C. A.(1992). Health and perimenstrual symptoms: Health

- outcomes for employed women who experience perimenstrual symptoms. *Women & Health, 19*(1), 65-78.
- Lin, N., Dean, A., & Ensel, W.(1986).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on*. Orlando, Florida Academic Press.
- McBride, A.(1988). Mental health effects of women's multiple roles. *Image: Journal of Nurse School, 20*, 41-47.
- Macewen, K. E. & Barling, J.(1988). Interrole conflict, family support and marital adjustment of employed mothers: A short term,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9*, 241-250.
- Marshall, N. L. & Barnett, R. C.(1993).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among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 64-78.
- Maynard, M.(1993). A comparison of female professionals' role profiles with occupationa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30*, 123-142.
- Parasuraman, S., Greenhaus, J. H., & Granrose, C. K.(1992). Role stressors, social support, and work-behavior among two-career coupl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 339-356.
- Pines, A. & Kafry, D.(1981). The experience of tedium in three generation of professional women. *Sex Roles, 7*(2), 117-134.
- Reifman, A., Biernat, M., & Lang, E. L.(1991). Stress, social support, and health in married professional women with small childr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5*, 431-445.
- Rook, K. S.(1984). The negative side of social interaction: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5), 1097-1108.
- Rudd, N. M. & McKenry, P. C.(1986). Family influences on the job satisfaction of employed mothe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0*, 363-372.
- Sarason, I. G., Levines, H. M., Basham, R. B., & Sarason, B. R.(1983). Assessing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27-139.
- Shin, K. R.(1993). Factors predicting depression among Korean-American women in New York.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30*(5), 415-523.
- Snapp, M. B.(1992). Occupational stres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among Black and White professional-managerial women. *Women and Health, 18*(1), 41-78.
-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1994). *The national data book*. Washington, DC: Bureau of the Census.
- Stevens, G. & Hoisington, E.(1987). Occupational prestige and the 1980 U. S. labor force. *Social Science Research, 16*, 74-105.
- Stichter, S.(1990). Women, employment and the family: Current debates. In S. Stichter & J. L. Parpart(Eds.), *Women, employment, and the family in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Philadelphia: Temple Univ. Press.
- Suls, J.(1982). Social support, interpersonal relations, and health: Benefits and

- liabilities. In G. S. Sanders & J. Suls(Eds.), *Social psychology of health and illness*.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wn.
- U. S. Department of Commerce(1994),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94*. Washington, DC: Bereau of the Census.
- Vanfossen, B. E.(1981). Sex differences in the mental health effects of spouse support and equal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June), 130-143.
- Vaux, A.(1988).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New York: Praeger.
- Vaux, A., Riedel, S., & Stewart, D.(1987). Modes of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Behaviors(SSB) Scal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iatry*, 15, 209-237.
- Weiss, R. S.(1974).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In Z. Rubin(Ed.), *Doing unto other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Wong, B.(1985). Family, kinship, and ethnic identity of the Chinese in New York City, with comparative remarks on the Chinese in Lima, Peru and Manila, Philippine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6(2), 231-254.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in relation to Social Structural Variables and Social Support

Hye won Kim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plored how employment affects employed women's, especially employed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or happiness. On the basis of the main expectation that psychological well-being experienced by the employed mothers is not determined by the employment *per se*, but by the women's social structural variables and social support,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social structural variable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etween Nov. 1, 1995 and Dec. 4, 1995, a sample of 558 married Korean mothers (263 employed and 295 nonemployed women) completed a questionnaire survey. In results, employed mothers in service jobs reported lower levels of well-being than employed mothers in other types of jobs,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only daughter(s) reported lower levels of well-being than nonemployed mothers with at least one son. In addition, social support provided by various sources was related to high levels of well-being among both groups of women. Moreover, while the quantity of social support (especially, from husband) was more important for employed women than for nonemployed women, the quality of social support (especially, from husband) was more important for nonemployed women than for employed women.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e unique culture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